

고구려도시건설의 중요특징

한 정 민

B.C.277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첫 봉건국가를 형성한 고구려는 강대한 국력, 발전된 생산력에 기초하여 고대국가들에서 볼수 없었던 큰 도시와 성곽, 화려한 궁전, 살림집, 종묘, 절간과 큰 무덤들을 건설함으로써 중세 동방강국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의 건축술과 미술은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건축술과 미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것은 1 000여년전에 건설되어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보존되고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수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고구려고분의 벽화들과 경주 석굴암의 조각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158페이지)

사회발전의 종합체인 건설은 해당 사회,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발전의 집중적표현으로서 그것은 당대는 물론 후세에 가서도 민족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고구려사람들은 높은 민족적공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니고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였으며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방대성과 독특성, 정연성과 류형의 정형화로 특징지어지는 도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고구려도시건설의 중요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정치군사적목적을 고려하여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건설을 진행한것이다.

수도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이다.

고구려에서는 우선 나라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건설을 진행하였다.

고구려는 존재한 기간 나라의 중심지를 여러번 옮기면서 수도를 건설하였으며 지방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에 성을 쌓고 주민지들을 형성하였다.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오늘의 중국 료녕성 환인일대)성과 나라를 세운지 거의 300년이 되어오던 때에 옮긴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오늘의 길림성 집안), 427년에 옮긴 마지막수도 평양을 비롯한 모든 수도들에 5부 즉 5개의 행정구역인 중부, 북부, 남부, 동부, 서부로 나뉘어 주민지구들을 건설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수도와 여러개의 부수도, 립시수도들을 특별히 건설하고 정연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또한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벌과 산, 강이 있는 곳들에 건설하였다.

고구려는 처음 수도를 잡으면서 여기는 《땅이 기름지고 산과 강이 험하다.》*1라고 하였으며 다시 수도를 국내로 옮기면서 《그 산과 강이 깊고 험하며 땅에 오곡이 잘되고 물고기의 원천도 많으므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할뿐아니라 전쟁의 피해도 면할수 있을것》*2이라고 하였다.

*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시조동명성왕 원년

*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21년 3월

고구려의 수도들과 부수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크고작은 도시들은 벌판을 끼고 한쪽

에 산이 솟아있거나 주변에 산이 둘러져있으며 한쪽으로 강이 에돌아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도시의 자리를 잡으면서 농업생산, 군사적방위, 도시생활과 교통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벌판, 산, 강을 리용하여 도시를 건설하는것은 그후 우리 나라 중세도시건설의 전통으로 되었다.

고구려도시건설의 중요특징은 다음으로 방위시설인 성을 도시의 안전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구조구성요소로 하여 도시를 든든하게 건설한것이다.

고구려의 도시는 지금까지 알려진데 의하면 대체로 도시주변을 성으로 두르지 않은 도시와 도시주변을 성으로 두른 도시로 나누어진다. 이 두 류형의 도시들은 모두 견고한 방어시설인 성과 뿔수없이 련관되어있었다.

둘레성없는 도시로서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 지방행정단위인 내미홀군의 성읍이었던 황해남도 해주 수양산성과 그 남쪽, 오곡군의 성읍이었던 황해북도 서흥군 오곡성(대현산성)과 그 남쪽 주민지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둘레성없는 도시들을 보면 대체로 북쪽의 험한 산에 성을 쌓고 그가운데에 도시가 전개되어있었다.

집안의 압록강기슭에는 국내성이 있고 그 서북쪽 약 2.5km 되는 곳에는 위나암산성이 있는데 국내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도시가 전개되어있었으며 도시주민들은 유사시에 방어성인 위나암성에 들어가 적과 싸우게 되어있었다.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지성산성(수양산성)밑인 학현과 황해북도 서흥군 오곡성(대현산성)밑에도 주민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산성과 밀접히 련결된 성읍이 있던 곳이다.

평양성에는 남쪽에 안학궁이 있고 그 북쪽 750m 되는 곳에 대성산성이 있었으며 구릉지대에는 도시가 전개되어있었다.

둘레성있는 도시성들을 보면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하나는 룡동성과 같이 평지에 건설된 도시의 주변에 네모나게 성을 쌓은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새 평양성(장안성)과 같이 도시주변의 산과 강기슭을 따라 성을 쌓아 두른 도시이다.

료동성은 4세기부터 오래동안 정치, 경제, 군사적중심지였는데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룡동성무덤의 그림은 네모난 룡동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양성은 586년부터 7세기 중엽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산과 강기슭을 따라 성이 둘러져있었다. 이렇게 둘레성이 있는 도시 즉 평산성형식의 도성체제로 이행하게 된것은 도시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요구와 관련되었다.

이 시기 형성된 도성체제는 그후 우리 나라 중세수도건설의 본보기로 되었다.

한편 지방도시들에서는 6세기 중엽이전에도 별방성 즉 룡동성에서와 같이 둘레성있는 도시, 주민지를 건설하였으며 6세기 중엽이후에도 수양산성과 그밑의 학현주민지유적에서와 같이 둘레성없는 도시, 주민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도시와 관련된 고구려의 성들은 독특하게 건설되었다.

둘레성없는 도시의 주변에 건설된 위성들은 거의 모두가 산골짜기가 있는 고로봉식산성으로 되어있으며 지어 도시성의 북성도 고로봉식으로 되어있었다.

고로봉식산성은 산릉선, 절벽을 따라 성을 쌓기때문에 방어하기 좋고 한쪽 경사지를 따내어 성벽을 쌓으면 견고한 성벽이 되어 평지에서보다 성을 쌓기 쉬웠다. 그리고 골짜기를 끼고있어 적들로부터 은폐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물자를 저장하기 좋았으며 물원천이 풍부하였다.

국내의 위나암성은 Y형의 골짜기를 가진 고로봉식산성인데 성벽은 산릉선과 절벽을

따라 쌓았다. 그 전체 길이는 약 7km(6 951m)로서 평양의 대성산성, 북평양의 봉황성과 함께 고구려에서 가장 큰 산성중의 하나이다. 성벽은 아직도 그 높이가 7~8m나 되는 곳도 있다. 성벽에서는 5개의 성문터가 알려졌으며 성안에는 장대터, 망대터, 행궁터, 큰 못들이 있다.

도시성의 둘레성은 평산성(장안성)으로 된것과 별방성(료동성)으로 된 두가지가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산과 강을 끼고 건설된 도시의 둘레성들은 모두 산릉선과 산기슭을 따라 평산성의 형식으로 쌓았다.

평산성형식은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게 건설된 성형식으로서 우리 나라 중세도시의 기본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룡동지방의 별방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별방조건에 맞게 도시를 네모나게 건설하였다. 이런 별방성형식은 후세의 지방도시건설에서 일부 적용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산성, 도성들에 여러가지 방어구조물과 시설물들을 건설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리용하였다.

성벽은 돌성벽, 흙성벽 그리고 돌과 흙을 섞어 쌓은 돌흙성벽으로 나누어진다.

돌성벽은 성벽자름형태에 따라 똑성벽과 벼랑성벽으로, 성벽쌓기정도에 따라 외면성벽과 량면성벽으로 나누어진다. 똑성벽은 말그대로 성벽이 똑처럼 된것인데 그것은 주로 평지 또는 일부 산릉선에 성을 쌓을 때 적용되었으며 벼랑성벽은 경사지를 따내고 거기에 옹벽을 쌓듯이 성벽을 만든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거의 모두가 산경사지에 성벽을 쌓을 때 적용되었다.

외면성벽은 성벽의 한쪽만 가파롭게 돌로 만든것이며 량면성벽은 성벽안팎면을 돌로 만든것이다. 벼랑성벽은 모두 외면성벽으로 되며 똑성벽은 외면성벽 또는 량면성벽으로 된다.

고구려사람들은 돌성벽을 쌓을 때에 벼랑성벽은 물론 똑성벽에서도 외면성벽형식을 많이 썼으며 일부 평지의 성문주변에서만 량면성벽형식을 적용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성벽의 기초를 지질조건에 따라 다르게 하였다. 암반이 있는 곳에서는 겉흙을 들어내고 거기에 직접 성을 쌓았으며(평양성 북쪽 서쪽벽) 굳은 지반에도 흙을 다져 힘반이능력을 크게 하였다.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2~3m 깊이로 땅을 파고 거기에 큰 돌을 넣어 성의 기초를 해결하였으며(평양성 외성 남벽) 감탕지대에서는 3~4m 깊이로 땅을 파고 거기에 굵고 짧은 통나무를 촘촘히 깔고 그우에 직경이 약 30cm정도인 통나무(밤나무)를 세로방향으로 깔고(3~4줄) 그우에 성벽을 올려쌓았다.(평양성 중성 서쪽성벽)

성벽에는 성문, 수구문, 암문, 치, 장대, 황, 각루 등이 건설되었다. 성문에는 옹성, 적대까지 설치되었다. 수구문은 성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뽑으면서 방어시설물로도 리용된 건축구조물이며 암문은 비밀통로로 성벽에 낸 문이다. 공격하는 적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성벽에 짧게 내쌓은 시설물이며 황은 성밖에서는 적의 침습을 막으며 성안에서는 장마때 물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길게 파놓은 구덩이이다. 그리고 옹성은 성문밖으로 둘러쌓은 성이고 적대는 성문을 한쪽 또는 량쪽에서 보위하기 위하여 치처럼 성문 한쪽 또는 량쪽에 내쌓은 시설물이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성문을 긴 성벽에 내기도 하였지만 산경사지에서는 좁고 깊게 휘여든 성벽에 내거나 성벽을 평행으로 꺾어쌓은 두 성벽사이에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성문에는 적대를 설치하고 옹성을 반원형 등으로 쌓았다.

그리하여 산성들을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는 성새, 보루로 만들었다.

고구려도시건설의 중요특징은 다음으로 도시주민지건설을 봉건통치배들의 생활보장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어 진행한것이다.

고구려의 도시에서는 우선 봉건통치배들의 생활상편의를 기본으로 주민지를 배치하였다.

둘레성없는 도시, 주민지의 모습은 잘 알수 없으나 그것은 대체로 북쪽의 산을 배경으로 그 남쪽에 궁성을 배치하고 주민지를 량옆과 앞에 정연하게 배치하였으리라고 본다.

둘레성있는 도시 즉 도성은 일반적으로 외성과 내성으로 나누어져있었다. 료동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있었으며 평양성은 내성북쪽에 북성, 외성과 내성사이에 중성이 또 있었다.

일반적으로 내성은 통치배들이 있던 곳이었고 외성은 피압박대중이 살던 곳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도성들은 내성을 중심으로 외성이 사방으로 둘러싸이는것이 아니라 내성의 한쪽에 외성이 덧놓이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외성, 내성제도는 그후 고려때까지 도시건설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도시안의 산, 경사지에서는 등고선방향으로 길을 내고 집들을 지었으며 벌방에서는 장기판처럼 규칙적으로 동서, 남북방향으로 길을 내고 정연하게 리방을 형성하였다. 방은 도시계획상 기본구성단위이며 리는 확대구성단위라고 볼수 있다. 리방은 도시를 규모있게 꾸리는것과 함께 도시주민들에 대한 봉건적통치를 체계화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생겨난것이다.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리방제도는 발해와 후기신라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고려와 조선봉건왕조때에는 그것이 부방제도로 바뀌여졌다.

고구려의 도시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어 꾸려졌다.

리와 리, 방과 방사이의 도로들은 몇가지 등급 즉 대, 중, 소로 나누어져있었는데 그것들은 고구려자의 일정한 배수로 되어있었다. 도로들은 강자갈로 포장되고 그 량옆에는 물도랑이 나있었다. 도시안의 기본중심축은 동, 서, 남, 북에 설치된 성문의 구성축과 일치되어있었다.

강에는 크고작은 다리들이 건설되어있었으며 평양성에는 외성밖에서 내성까지 련결된 긴 운하가 굴설되어있었다.

이와 함께 고구려에는 수도 평양에 잇닿은 봉수체계가 갖추어져있었으며 도시변두리에 많은 무덤들이 있었다. 고구려 집안의 국내성주변에는 수많은 고구려무덤들이 있으며 대성산아래 안학궁량옆의 구릉지대에도 많은 무덤들이 있다. 그것은 《령훈불멸》의 관념으로부터 무덤을 도시가까이에 배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도시건설은 나라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할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남김없이 보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